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 참가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강 준 호** · 조 송 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체육이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설치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막과 더불어 맞이하게 된 광복 이후 신교육사조와 시대의 절실한 요청 때문이었다. 최초 교육법에 반영되어 필수교양과목으로 채택된 교양체육은 현재에 이르러 선택교양과목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교양체육은 체육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적·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지니게 하여 장차 지도자로서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심신의 발달단계로 보아 성숙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은 진리의 탐구라는 학문적 목표와 사회 진출의 예비과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인성의 함양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으며, 대학 또한 전공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교과를 편성하여 사회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영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성향으로 인해 대학에서도 협동심과 희생정신이 쇠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의 습득에 앞서, 폭넓은 교양을 쌓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이란 사회활동과 집단활동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특성이라고 정의된다(정범모, 1971). 사회성은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등 다섯 가지의 하위 개념의 총체로 첫째, 활동성(activity)은 일상생활에 정력적이고, 생산적이고,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좋아하며, 많은 일을 해내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활동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특성을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학원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안정 및 성숙되어 있고, 침착하며 자아가 조절되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마음의 동요가 적을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을수록 어떠한 일에 대해 쉽게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배성(dominance)은 집단생활에서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지도적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기 좋아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대담하고,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지배성이 높을수록 집단에서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사교성(social gathering)은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협동적인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사교성이 높을수록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고, 친구가 많고, 인정이 많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자율성(self-regulation)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인 행동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고자 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다른 사람의 지시나 주장에 쉽게 동조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 참가는 분노, 흥분, 불안, 좌절 등과 같은 기본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관용과 아량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준다는 점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습득하는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각의 구성원은 각자의 개성을 보다 발휘하게 되는데, 사회에 진출하기 바로 전 단계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능력인 사회성은 대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정갑순, 1980; 박연숙, 1989; 고재건, 1992; 전택주, 1992; 박경수, 1993; 하지원, 1993; 백정숙, 1994; 김경숙, 1995; Spreitzer, & Snyder, 1976; Yiannakis, 1976; Yamaguchi, 1984)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거나,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아동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학생들의 교양체육을 통한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기 전과 수강한 후의 사회성

발달 정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양체육의 역할을 새로이 규명하며, 다양한 교양체육 종목 가운데 대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종목을 규명함으로써 교양체육 교과과정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 전·후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 첫째,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
- 둘째, 교양체육 개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
- 셋째, 교양체육 대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
- 넷째, 교양체육 단체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양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 가운데 규모나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종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학년과 개인차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S대학교의 2001학년도 2학기과 2002학년도 1학기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에 의거하여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된 300명 가운데 사전사후검사에 모두 응답한 최종 연구대상은 27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27명분이 설문지를 제외한 250명이었다. 이와 같은 250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인 종목(골프, 수영, 에어로빅, 체력단련, 양궁) 수강자 89명, 대인 종목(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호신술, 테니스) 수강자 93명, 단체 종목(축구, 농구, 야구) 수강자 6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의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도구는 설문지이다.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은 교양체육 수강 과목으로 실기 종목은 개인 종목, 대인 종목, 단체 종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정범모(1971)에 의해 개발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인성 진단 검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태룡(1998)의 사회성 발달 설문지를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한태룡(1998)의 사회성 발달 설문지는 5개 변인별로 각각 30문항씩 총 1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새로이 구성하였다. 사회성 발달 설문지의 수정·보완은 2001년 하계방학 기간 중 교양체육 계절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본 검사에 사용하였다.

사회성 측정 설문지는 총 5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성은 “나는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해 낼 수 있다”, 안정성은 “나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지배성은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드는 편이다”, 사교성은 “나는 아는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율성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내 스스로 결단을 잘 내린다”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6점 평정척도로 “매우 그렇다” 6점,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아닌 편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에서 분석되어진 사회성 발달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는 바,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고,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행렬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기준은 그 절대값이 .40 이상인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검증된 신뢰도와 타당도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사회성 측정 설문지의 신뢰도

변인	하위 변인	Cronbach' α	
사회성	활동성	.763	.867
	안정성	.842	
	지배성	.807	
	사교성	.850	
	자율성	.772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성 측정 설문지의 신뢰도는 하위 변인별로 .763에서 .850 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전체의 신뢰도는 .867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 사회성 측정 설문지의 직각회전 요인분석

문항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문 22	.816	.122	.082	.080	.087
문 17	.791	.239	.054	.016	.064
문 12	.755	.283	-.060	-.034	.116
문 2	.744	.124	-.098	.068	.143
문 7	.664	.114	.014	-.089	.112
문 9	.184	.788	.156	.139	.125
문 19	.201	.788	.065	.216	.017
문 14	.181	.739	-.048	-.011	.103
문 24	.109	.717	-.021	.160	.244
문 4	.235	.693	.011	.158	.096
문 1	-.088	.054	.771	.182	.040
문 11	-.040	.085	.761	.203	.077
문 6	.068	.031	.647	.043	.285
문 21	-.001	-.067	.575	.133	.085
문 16	.085	-.008	.542	.242	.371
문 23	.087	.147	.111	.813	.223
문 18	.008	.159	.073	.721	.181
문 13	.104	.256	.209	.669	.053
문 8	-.182	.015	.205	.658	.018
문 3	.044	.088	.372	.638	-.004
문 25	.200	.194	.007	.049	.767
문 5	.071	.030	.330	.083	.689
문 20	.304	.259	.083	.114	.644
문 10	.068	.105	.332	.125	.554
문 15	.002	.145	.457	.263	.489
고유값	6.652	3.703	1.984	1.357	1.098
분산(%)	26.608	14.810	7.938	5.427	4.391
누적(%)	26.608	41.419	49.356	54.783	59.174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I에는 안정성과 관련된 5개 문항, 요인 II에는 사교성과 관련된 5개 문항, 요인 III에는 활동성과 관련된 5개 문항, 요인 IV에는 지배성과 관련된 5개 문항, 요인 V는 자율성과 관련된 5개 문항으로 집약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5개 요인 모두 높은 요인적재치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이 사회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두 학기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먼저 2001학년도는 2학기 3주차에 사전검사를 완료하고, 15주차에 사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02학년도는 1학기 3주차에 사전검사를 완료하고 14주차에 사후검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연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설문문항에 대해 설명을 해 준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자료를 검토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 기입 및 무기입 자료 등은 제외하고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SPSS Windows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 자료 분석의 목적에 맞게 통계처리를 하였다. 컴퓨터 입력이 끝난 자료는 SPSS 하위프로그램인 Frequency를 이용, 오류검증(verification) 및 극단치 검증(outlier)을 실시하여 자료분석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연구문제의 규명은 대응표본(paired-samples) t-검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본 연구의 문제 I은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 250명 전체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대응 관계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활동성 1 - 활동성 2	-.070	.547	-2.012	.045
안정성 1 - 안정성 2	.003	.647	.078	.938
지배성 1 - 지배성 2	-.088	.554	-2.508	.013
사교성 1 - 사교성 2	.014	.676	.243	.808
자율성 1 - 자율성 2	-.039	.578	-1.072	.285

주) 1 : 사전 검사, 2 : 사후 검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 전체는 사회성의 하위 변인 가운데 활동성 변인과 지배성 변인에 있어서 수강 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의 경우 교양체육 실기 종목을 수강하기 전보다 수강을 하고 난 후에 보다 행동이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일 처리를 빨리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대담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체육수업이 지니는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전태원 등(2001)은 교양체육의 역할을 체력 향상 및 신체적 건강의 유지·증진, 평생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운동기능의 학습장, 그리고 협동심, 이해심, 예의범절, 책임감 등과 같은 인성을 도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백정숙(1994)은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무용교육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무용교육을 받은 여고생이 받지 않은 여고생보다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하지원(1993)은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가 경험과 사회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해 사회성의 발달이 월등하였다는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박경수(1993)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연 체험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태룡(1998)은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사회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즉, 교양체육 실기 종목의 수강은 학생들에게 사회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교양체육 개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본 연구의 문제 II는 “교양체육 개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종목(골프, 수영, 에어로빅, 체력단련, 양궁) 수강자 89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양체육 개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대응 관계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활동성 1 - 활동성 2	-.105	.574	-1.734	.086
안정성 1 - 안정성 2	-.043	.710	-.567	.572
지배성 1 - 지배성 2	-.065	.620	-.992	.324
사교성 1 - 사교성 2	-.016	.739	-.201	.842
자율성 1 - 자율성 2	-.065	.708	-.868	.388

주) 1 : 사전 검사, 2 : 사후 검사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종목 수강자들은 수업 전·후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 수영, 에어로빅, 체력단련, 양궁 등과 같은 개인 종목에서는 교양체육수업을 통하여 사회성이 발달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4>의 평균값을 보면 모두 음수(-)의 값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값이란 사전검사의 사회성 측정치에 사후검사의 사회성 측정치를 감한 값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음수라는 것은 사전검사의 사회성 측정치보다 사후검사의 사회성 측정치가 높다는 의미 즉, 사회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개인 종목을 수강하는 것으로도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골프를 예를 든다면 팀을 구성하여 골프공의 비행 거리 또는 정확도 등을 상호간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자세 교정을 수강자 동료 간에 할 수 있도록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한다면 혼자서 배우는 개인 종목이지만 실제 수업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회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교양체육 대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본 연구의 문제 III은 “교양체육 대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 종목(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호신술, 테니스) 수강자 93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양체육 대인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대응 관계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활동성 1 - 활동성 2	-.032	.533	-.583	.561
안정성 1 - 안정성 2	.012	.552	.225	.822
지배성 1 - 지배성 2	-.037	.558	-.631	.530
사교성 1 - 사교성 2	.010	.617	.168	.867
자율성 1 - 자율성 2	.062	.507	1.145	.255

주) 1 : 사전 검사, 2 : 사후 검사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 종목 수강자들은 수업 전·후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호신술, 테

니스 등과 같은 대인 종목에서는 교양체육수업을 통하여 사회성이 발달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 종목에 대한 수업 프로그램은 운동 기능과 정확한 자세의 습득에 주안점을 두다가 수강자의 운동 기량이 높아지면 상호 경기를 통해 우열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세와 경기 능력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나 각각의 운동을 정식으로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자세가 경기에서의 승리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테니스 초급의 경우에는 종강이 다가와도 학생들간에 시합을 하는데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시합의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며,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중등학교에서 영성하게 배운 자세로 경기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자세를 취하는 상대를 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대인 종목 자체는 다른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에 비해 많은 흥미를 갖게 되지만 실제 학점을 잘 받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은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요구되며, 시합의 결과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인 종목의 수업 프로그램은 자세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통한 자발적 경기 진행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일정 시간을 지속적인 자세 교정과 반복 학습에 치중하지 말고 수업 프로그램 초기에서부터 경기를 하도록 구성하며, 이를 통해 보다 경기를 잘 하기 위한 자세의 교정으로 수업을 변화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인 종목의 경우도 4인 혹은 6인 1조의 팀을 구성하여 팀별 대항을 하도록 하고, 각 팀별로 팀원 상호간에 자세를 교정해주고 경기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교양체육 단체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본 연구의 문제 IV는 “교양체육 단체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를 규명한다”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단체 종목(축구, 농구, 야구) 수강자 68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단체 종목 수강자의 사회성 발달 차이

대응 관계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활동성 1 - 활동성 2	-.074	.533	-1.138	.259
안정성 1 - 안정성 2	.050	.688	.599	.551
지배성 1 - 지배성 2	-.188	.442	-3.509	.001
사교성 1 - 사교성 2	.044	.673	.540	.591
자율성 1 - 자율성 2	-.141	.451	-2.576	.012

주) 1 : 사전 검사, 2 : 사후 검사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 종목 수강자들은 사회성의 하위 변인 가운데 지배성 변인과 자율성 변인에 있어서 수강 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양체육 실기 종목 중 단체 종목 수강자의 경우 교양체육 실기 종목을 수강하기 전보다 수강을 하고 난 후에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대담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고, 자주적, 자발적이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태련과 장휘숙(1988)은 동료집단(peer group)이 우정과 기쁨은 물론 정서적 지원과 이해를 제공해주며, 성인기의 사회적 집단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팀 플레이를 하는 단체 종목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축구와 야구 그리고 농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5명에서 11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가운데 노력의 결과를 얻고자 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 종목은 학생들이 가운데 몇 명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리더의 생각을 조정해주고 따라가는 연대감(fellowship)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사회성의 하위 변인 가운데 지배성과 자율성에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양체육의 목적을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개인 종목 및 대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 중 심으로 교과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 이전에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축구와 야구 종목과 같은 실외 운동의 경우 해당 운동 장소에 라커룸이나 샤워실과 같은 운동 부대 시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완벽히 조성될 때 교양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체육수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은 S대학교의 2001학년도 2학기과 2002학년도 1학기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가운데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에 의거하여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집된 300명 가운데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5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설문지로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정범모(1971)에 의해 개발되고 한태룡(1998)에 의해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2001년 하계방학

기간 중 교양체육 계절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수정된 설문지를 본 검사에 사용하였다.

본 검사에서 분석되어진 사회성 발달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는 바, 신뢰도는 하위 변인별로 .763에서 .850 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2001학년도 2학기과 2002학년도 1학기에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규명은 대응표본(paired-samples) t-검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양체육 실기 종목 수강자 전체는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기 전보다 수강하고 난 후 사회성이 발달되었으며, 다섯 가지 사회성 하위 변인 가운데 활동성 변인과 지배성 변인에 있어서 수강 후 변화가 있었다. 즉, 교양체육 실기 종목을 수강은 대학생의 활동성과 지배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교양체육 실기 개인 종목 수강자들은 수업 전·후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개인 종목이지만 학생 상호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교양체육 실기 대인 종목 수강자들은 수업 전·후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자세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수업이 되도록 하고, 팀을 구성하여 팀원 상호간에 자세를 교정해주고 경기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식이 요구된다.

넷째, 교양체육 실기 단체 종목 수강자들은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하기 전보다 수강하고 난 후 사회성이 발달되었으며, 다섯 가지 사회성 하위 변인 가운데 지배성 변인과 자율성 변인에 있어서 수강 후 변화가 있었다. 즉, 교양체육 실기 단체 종목을 수강은 대학생의 지배성과 자율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개인 종목 및 대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성에 대한 정의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성의 분류 기준이나 하위 변인에 대한 분류가 각

자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결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전문화된 사회성의 개념과 하위 변인에 대한 분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에 따라 단기간의 사회성 변화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교양체육 실기수업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된 학생이 다시 시일이 경과하여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다양한 배경변인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양체육 실기 종목과 이론 과목으로 한정하여 연구되었던 바, 후속 연구에서는 성, 학년, 학번, 동료관계 등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성 차이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고재건(1992). **취학전 아동의 신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1995). **국민학교 운동선수의 사회성 형성 요인 및 학업 성적에 대한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장휘숙(1988). **발달심리**. 서울: 박영사
- 박경수(1993). **청소년 단체 활동과 사회성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숙(1989).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정숙(1994).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 교육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태원 외 5인(2001). **서울대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체육 운영 방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전택주(1992).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정신발달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순(1980). **또래집단에서의 어린이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1971). **인성검사요강**. 서울: 코리아테스팅센터.
- 하지원(1993).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가 경험과 사회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태룡(1998).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preitzer, E. A., & Snyder, E. E. (1976). Socialization into sport :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Research Quarterly*, 47, pp. 238-245.
- Yiannakis. (1976). Delinquent tendencies and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sports program. *Research Quarterly*, 47, pp. 845-849.
- Yamaguchi, Y. (1984). A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 socialization into sport : The case of Japan and Canad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Sport*, 19(1), 63-8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y Classes and Soci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Kang, Joon-Ho* · Cho, Song-Hye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y classes and soci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00 "S" university students and 250 students out of the 30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Han's(1998) modified version of Jeong's(1971) was used for measuring sociability.

The Cronbach' α of the measures ranged from .763 to .850.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sociability consisted of five factors: activity, emotional stability, dominance, social gathering, and self-regulation. The statistical technique used for data analysis was a paired-samples t-test by SPSS/PC v 10.0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port activity classe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activity and dominance.

Second,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individual sport activity class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sociability.

Third,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dual sport activity class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sociability.

Finally,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eam sport activity classe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dominance and self-regulation.

* :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